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내가 책임자”

민주당 중앙당서 예비후보 면접 마무리 내달 초 예비경선 돌입...4월 20일 공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중앙당 면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천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에 이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 등 8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24일에 시행된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공

천을 신청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계호·주철현·신정훈 국회의원 4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앞서 전남에는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 등 4명이 면접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광주시장 예비후

보와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은 특별법 통과 이후를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로서의 심사를 받았다.

8명 예비후보들은 대체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관한 질문을 면접관들로부터 받았고 나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통합과 관련한 △리더십 △시민의 회 운영 △청년·미래 세대에 대한 대안 △일자리 확보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예비후보들은 대안이나 소신을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또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나 본격적인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방안, 지역발전 청사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에서는 물이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하나가 되면서 기존 ‘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라는 물리는 예비후보들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구 구성이나 당원 구성이 전혀 다른 두 시도의 지역민들과 권리당원의 표심을 특정한 기준으로만 담아낼 경우 당선 또는 민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다.

중앙당공천위는 이에 따라 전남광주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공정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높이는 경선 물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중앙당공천위원장의 면접에 앞

선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3가지 원칙 속에서 공관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적 국민정당인 민주당이 당헌, 당규, 경선 규칙을 통해 세세하게 시스템 공천이 되도록 정비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 토대 위에서 매우 적합한 후보를 골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철승·추미애·한준호 국회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국회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도 면접을 봤다. 주로 서울시의 비전과 재정, 공직자의 턱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한 평가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교홍·박찬대 국회의원, 강원지사 단독 예비후보인 이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면접을 받았다.

경남 지역 면접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단독 예비후보로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번 면접 결과를 평가한 뒤 다음 달 초 예비경선부터 시작해 본격선을 거쳐 오는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통합 에너지산업분야 미래비전설명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광주전남통합 에너지산업분야 미래비전설명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사항과 지역 에너지 산업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올해 공직자 1000명 뽑는다 공무원 646명·공공기관 354명...전년대비 각각 3배 늘어

광주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624명, 공공기관 공직자 354명 등 1000명의 공직자를 뽑는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와 자치구에서 근무하게 될 지방공무원을 올해 624명 신규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21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이다. 지난 3년(2023년 117명, 2024년 105명, 2025년 210명) 평균 144명과 비교하면 채용 규모가 480명(333%) 늘어 4.3배 수준에 달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에 따라 총 1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96명이 늘어난 사회복지직 107명, 간호직 52명, 보건직 10명, 보건진료직 1명 등이다.

행정직(7급 포함) 채용 규모도 지난해 대비 약 4.4배 많아진 272명을 채용한다.

통합돌봄 확대와 함께 행정통합, 민군공용 통합이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반영됐다.

여기에 공무원 15명과 청원경찰 7명도 신규 채용한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공직자도 354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137명 대

비 25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광주교통공사 278명, 광주도시공사 25명, 광주환경공단 13명, 광주관광공사 11명,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7명, 광주경제진흥원 7명, 광주경제진흥원 7명,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디자인진흥원 각 3명, 광주여성가족재단·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광주시체육회 각각 2명,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각 1명씩이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력의 78.5%를 차지하는 278명을 광주교통공사에서 채용한다. 광주교통공사는 올해 채용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234명을 단계적으로 선발, 총 512명을 뽑는다.

이는 지난 2002년 승인고시 이후 24년을

기다려온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대비한 인력이 대규모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관련 신규 인력은 총 469명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며, 올해 하반기 235명, 내년 상반기 234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교통공사는 대규모 채용에 앞서 상반기 중 기존 43개 직제에서 58개 직제로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의 좋은 정책이 좋은 일자리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 시민들과 함께 만든 결실을 청년들을 위한 희망 일자리로 되돌려드린다”며 “이번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영상위, ‘촬영하기 좋은 전남’ 위상 강화 지난해 로케이션 사업 성장...전년 대비 43% 증가

전남도영상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도민참여 기반의 로케이션 촬영 지원을 확대하며 촬영 유치 기반을 강화했다.

24일 전남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케이션 촬영 지원 작품은 267편으로, 2024년(187편) 보다 약 43%가 증가했다.

또 로케이션 DB도 1348건에서 1807건으로 증가하며 촬영 인프라가 강화됐다. 전남에서 촬영한 드라마 ‘모범택시3’,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이 공개되며 전남의 자연경관과 공간적 매력을 전국에 알렸다.

전남 로케이션 전문 플랫폼 ‘전남필름’ 이용도 크게 늘었다. 기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만명 수준이었지만 전남필름 구축 후 10만여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로케이션 분야의 도민참여 사업 역시 확대돼 도민이 영화·드라마의 보조출연자로 참여하는 ‘전남배우’에 현재까지 약 300명의 도민이 참여하고 있다.

출연 작품은 2024년 5편에서 지난해 12편으로 증가했으며, 총 출연료는

1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전남영상위는 지역민이 직접 자신의 동네와 생활 공간을 촬영지로 발굴하는 ‘도민 로케이션 매니저’ 사업을 통해 신규 로케이션 DB 390건을 추가 수집했고, 제작사 요청에 맞춰 장소 탐색·제안하는 ‘공개수배 로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25건의 맞춤형 자료를 발굴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남영상위는 로케이션 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도민참여 모델을 개발해 지역민의 참여가 지역 영상 산업을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정숙 전남영상위 사무국장은 “로케이션 사업과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작사들에게는 촬영하기 좋은 전남을, 지역민에게는 영화로 행복한 전남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로케이션 경쟁력 제고와 도민참여 사업 확대를 통해 전남형 로케이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숙 기자 holbu@gwangnam.co.kr



여수 큰곶등대 (드라마 ‘모범택시3’ 촬영지)

정준호, 28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통합 후 전남광주특별시장 방향성 제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이 오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서 ‘정준호의 대화-호남을 듣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해당 저서는 그간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귀 기울인 광주·전남 사·도민의 목소리와 행정통합 후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 의원의 의견이 담겼다.

특히 22대 국회 최초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발의하며 갖게 된 정책적 고민과 시민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깨달은 지역 발전 해법을 정리했다. 광주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정 현안 심층조사(FGI)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대응 과제도

담아냈다.

출판기념회는 저자와 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저자 소개 영상 상영, 특별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전남·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고 함께 고민한 기록을 책에 담았다. 이 기록이 광주의 다음 10년을 설계하기 위한 공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엮은 속의 결과와 전남·광주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초광역 지자체로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신정훈, 행정통합 구상과 의지 공유 28일 광주서 ‘돌아온 광주...’ 출판기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대안현을 향한 신 의원의 구상과 의지를 사·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다.

신 의원의 새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성이 담겼다. 저서는 총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해결책,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거듭나야 하는 당위성, 정치인으로서의 소명과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 등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와의 대화, 내빈 축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로서 저자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문상필, 북구·담양 광역생활경제권 제안 광역교통 일체화·일상권 통합 등 ‘상생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북구와 담양군이 행정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동성장 비전을 민주당 담양군수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문 예비후보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와 담양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다”며 “교통·경제·관광·청년·농업분야를 아우르는 실행 중심 광역 생활경제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미 광주 북구와 담양은 출·퇴근, 통학, 의료, 소비, 관광 등 일상생활이 연결된 하나의 긴밀한 지역이다”며 “하지 정책은 여전히 행정 경계에 묶여 있는 게 현실이며, 교통·관광·농산물 유통 등 광역생활권 실현한다면 지역민들의 혼란이 반복되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 예비

후보는 광역교통 일체화, 청년·농생명 융합 산업군 조성, 문화·관광 광역권 공동 브랜딩, 생활·의료·교육 일상권 통합, 환경·생태 공동 관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 경계는 지도에 있지만 주민 생활은 이미 통합돼 있다. 이번 제안은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혼란은 더욱 줄어 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광주 북구·전남 담양의 광역생활권 비전 제안은 정치적 구호를 넘어 실행으로 증명하는 광역생활권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들과 열린 자세로 대화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